

해외석유개발사업 및 정책방향

글 · 서 석 승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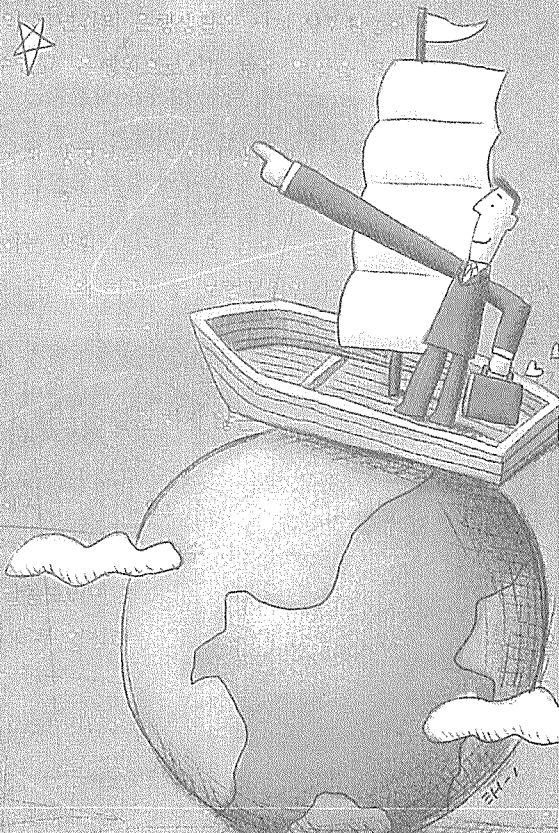
1. 머리말

에너지원 수입의존도 97%, 석유 해외의존도 100% !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통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유가상승은 국내 석유수급 불안정에 대한 영향은 물론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00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불 인상되면 무역수지가 약 7.5억불이 악화되며, 경제성장이 0.1%p 둔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2002년 가을을 고비로 주춤하던 국제유가가 연말인 지금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세계 석유확인매장량의 약 65%가 매장되어 있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문제,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가능성 고조, 전세계 4위의 원유수출국인 베네수엘라의 정국불안과 총파업 장기화등 석유공급의 불안정적 요인은 늘 우리곁에 상존한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 무엇을 우선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가?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그 일차적 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다.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은 그 일환이다. 계획경제가 아닌 바에야 물량적 목표치의 설정은 다소 무리스러운 점이 있으나 일응 미래상을 정립하여 본다는 취지에서 현재 약 2%에 머물고 있는 석유 자주개발율을 2010년까지 10%로, 천연가스는 현재 4.5%를 30% 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주개발 원유 10%의 달성은 국내석유소비 1개월 분을 약간 초과하는 물량이 간접 비축되는 효과가 있다.

2. 해외석유개발사업 추진현황

먼저, 비록 일천하기는 하나 그 간의 해외석유개발의 역사를 소상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용자대상 사업별·사업자별 합리적인 자원비를 조정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의 지속적인 모색, 자원개발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한 R&D 지원강화 및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원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출했던 해외 유전개발사업은 1981년의 인도네시아 마두라 사업이다. 약 20여년이 지난 2002년 6월말 현재 예멘, 페루, 영국, 베트남, 인니, 알제리 등 36개국 106개 사업에 진출하여 이 중 23개국에서 5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7개국 52개 사업은 사업성 결여 등으로 종료된 바 있다. 2002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업체는 미국 Terre Haute Reef Bank 사업에 신규 참여하였으며, 미국 Kohler, Bobcat, 영국 T-36 등 3개 사업을 종료하였다.

〈표 1〉 해외진출사업 진행 및 종료 현황(2002. 6월말 현재)

구 분	계
○ 진행사업	54(23개국)
- 생산	19(12개국)
- 개발	9(6개국)
- 탐사	26(16개국)
○ 종료사업	52(27개국)
계	106(36개국)

200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투자한 총액은 3,721 백만달러이다. 이 중 해외석유개발업체 자체 조달금액은 2,937백만달러이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액이 784백만달러이다.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약 21%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002년 상반기에는 총 230백만불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예특에서 7백만불이 용사되었다.

2002년 6월말 현재 우리가 해외에서 확보한 석유가채매장량은 431백만배럴이며, 가스는 108백만톤이다. 석유·가스를 합친 총가채매장량은 1,223백만배럴에 이른다. 2002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확보한 석유가채매장량은 2001년도 우리나라 원유도입량 859백만 배럴의 50%로 국내소비의 183일분에 해당한다.

2002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한 석유 생산광구 생산량 중 우리 몫은 약 8백만배럴였으며, 이로써 동 기간의 자주개발율은 1.95%를 시현했다. 가스의 경우 동기간 확보 물량이 404천톤으로 자주개발율은 4.54%를 기록하였다.

〈표 2〉 2002년 상반기 석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 현황

구 분	확보가채매장량	총수입량(a)	자주개발공급량(b)	자주개발률(b/a, %)
석유(백만배럴)	431	405	8	1.95
가스(천톤)	108,049	8,904	404	4.54

2002년은 그 동안 투자로 확보한 주요 유전개발사업의 본격 개발이 추진되었던 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동해-1 가스전, 해외의 베트남 15-1광구, 11-2가스전, 리비아 NC174 광구들이 그것이다. 아울러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흥 전략지역에 대한 참여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중·러 3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이르쿠츠크 가스전 타당성 조사사업은 2002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공동조정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사업의 지연요인으로 대두되었던 가스공급가격협상을 위한 별도협상팀이 구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2003년 6월까지 동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2년 3월에는 석유공사를 포함하는 국내 5개사가 카스피해 지역 유전개발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거쳐 현재 카자흐스탄 유망광구에 대한 입찰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콘소시엄사의 고위임원들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양국간 자원분야협력 강화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지역의 유망한 생산광구 지분매입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3. 2003년 석유개발 정책방향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는 장기적 과제를 어떠한 원칙과 전략하에 추진하려 하나?

2002년 12월에 정부가 산·학·연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2010년 에너지비전 : 에너지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에는 “해외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이 큰 축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2003년 석유개발 정책방향은 동 계획상의 목표달성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가는 수순이 된다.

가. 기확보한 대형 유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2001년 우리기술로 발견한 확인매장량 약 6억배럴 규모의 베트남 15-1광구 생산이 2003년 11월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한국기업들이 지분의 약 33.3%를 가지고 있는 가채매장량 6.6억배럴 규모의 리비아 NC 174광구 생산도 빠르면 2003년말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베트남 11-2 광구 가스전 개발도 예정대로 추진되어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 광구 가스 판매에 대한 석유공사와 베트남 국영석유사간의 기본합의서가 2002년 12월 23일 베트남에서 체결된 바 있다.

나. 전략적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속 추진

2002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카스피해 유전개발 신규진출사업의 성과가 2003년 상반기에는 어느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삼성물산, SK, LG상사 및 대성산업으로 구성된 한국 카스피해 컨소시엄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유망한 카스피해 해상 광구에 대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동 광구

에 대한 입찰계획 발표가 2003년 초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부와 2002년 11월 자원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말경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간 제1차 자원협력위 등 공식외교채널을 통해 카스피해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쿠츠크 가스전 타당성 조사사업이 2002년 하반기 한·중·러 3국이 합의한 바에 따라 2003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가스공급가격에 대한 별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 1월 하순경에는 동 사업 관련 다수의 실무위원회와 제4차 공동조정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사업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빠르면 2008년부터 한국과 중국으로 러시아 이르쿠츠크산 가스(PNG)가 공급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자원보고인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하여 우리의 사할린 사업참여를 적극 권유해 오고 있다. 2002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 5차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에서도 사할린 사업에 대한 한국참여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다. 정부는 사할린 석유·가스의 주요 수요처로서의 우리 입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동 지역에 대한 적절한 참여시기 및 방법 등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 석유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기반 확대

우선 정부는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대

탐사 및 생산광구 사업들의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 기술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대폭적 확대 및 선진 메이저들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등은 그러한 노력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폭 확대할 계획이다. 2002년 1,820억원이었던 관련재원이 2003년에는 44.7% 증가하는 2,634억원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 특별회계의 많은 사업중에서 특히 유전개발사업을 전략적 육성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향후에도 예산상의 지원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용자대상 사업별 · 사업자별 합리적인 지원비율 조정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의 지속적인 모색, 자원개발 핵심 기술 자립화를 위한 R&D 지원강화 및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원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 · 훈련 지원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 환경개선과 더불어 석유공사의 유전개발부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석유공사의 유전개발부문 부채비율은 2002년말 현재 약 1,3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석유공사의 민간기업투자 선도기능 확대 및 안정적인 자체 재투자 재원의 축적으로 해외에서 석유메이저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유전개발성공 주요광구들에 대한 출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라. 자원외교의 강화 및 구체적 성과구현

정부는 전략적 자원보유국과의 정부간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민간기업간의 신규 공동 프로젝트의 창출을 지원함과 더불어 이를 계기로 국제에너지 협력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 2002년까지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몽골 등 6개국과 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자원협력위원회가 2003년에는 카자흐스탄, 페루, 필리핀을 포함, 총 9개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미얀마, 남아공 등 주요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협력위원회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공식적인 자원

외교의 채널을 통하여 우리기업들의 해외자원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4. 맺음말

한국석유개발공사가 1979년에 설립되었고, 1981년에 최초로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우리나라는 약 20여년의 해외석유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부터 석유개발사업을 시작하여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 메이저 또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 유치단계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도 해외석유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머리말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정부는 2010년 에너지 발전비전을 통해 현재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석유 자주개발율을 2010년까지 10%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장기 석유개발사업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

탐사 및 생산광구 사업들의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 기술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대폭적 확대 및 선진 메이저들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등은 그러한 노력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에 무엇보다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 석유공사와 민간기업들의 지난 20여년간 값진 경험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토대로 한국 해외석유개발사업이 향후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